

“AI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글로벌 전남 농업 선도”

●전남연구원 국제심포지엄 성료

한·중·일 등 동북아 AI 첨단농산업 현황·발전전략 모색
연구개발·생산·기업지원·수출 연계 AI 융복합지구 주목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AI 첨단 농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글로벌 전남 농업을 선도할 '전남 AI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연구원은 전남도와 공동으로 12일 오전 10시 전남도농업기술원 종합연구구 세미나실에서 '동북아 AI 첨단농산업 현황과 발전전략'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각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의 개회사·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한국(전남), 일본, 중국 등 동북아 3개 국가의 첨단농업 추진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

의했다. 1부에서 강혜정 전남대학교 교수가 '전남 AI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심화 대응 정책 대안으로 '스마트 농업 실현'을 제시했다. 특히 강 교수는 연구개발부터 생산, 기업 지원, 수출까지 이어지는 통합 플랫폼인 'AI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강경구 일본 남구주대학 교수는 '일본의 AI 농업정책 및 현황'을 통해 "일본 정부는 스마트농업에 AI를 접목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며 실질적인 현장 도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농업 실증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전남연구원은 전남도와 공동으로 12일 오전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동북아 AI 첨단농산업 현황과 발전전략'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충식 기자

리다오량(李道亮) 중국농업대학 스마트농업센터 원장은 "중국 스마트농업 발전 추세 및 전략"을 발표했다.

농업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농기계 리다오량 원장은 "중국은 2050년까지 작업 무인화·협동화 등 스마트팜 기술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과학·산업 교육을 융합한 디지털 농업의 4차 체인(산업·교육·인재·혁신) 연결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진 2부 종합토론에서는 조창완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이 좌장을 맡아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 이명훈 순천대학교 교수, 조윤섭 전남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장, 서정원 광주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오성수 광주매일신문 상무이사, 박종찬 ㈜ATTIC 연구소장이 참여해 동북아 첨단농산업 발전 방향과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은 "전남에 AI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되면 네덜란드 푸드밸리와 같은 최첨단 농업혁신밸리 역할을 수행해 국내를 넘어 동북아 농업 발전에도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며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동북아시어 첨단농업정책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해법을 제시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재 기자

‘전남 귀농산어촌 맛보기’ 도시민 호응

지원정책 안내·관광지 탐방 등 다채...이달 2기 참여자 선발

전남도가 지난달 운영을 시작한 '전남 귀농산어촌 맛보기' 프로그램이 도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 22일부터 2박3일간 대한민국재향경우회원 40명을 대상으로 전남의 귀농어촌 지원정책 안내, 함평군 체류형 지원센터 견학 및 국향대전 관람, 고추장 만들기 현장 체험, 신안 퍼플교 탐방 등 '전남 귀농산어촌 맛보기 현장 체험 1기'를 진행한 데 이어, 11월과 12월에도 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남 귀농산어촌 맛보기 현장 체험 교육은 전남도 귀농산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대도시 기관·단체 직원, 회

원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선발한다. 11월 중 2기 참여 대상자를 선발·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에 거주하며 1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회원은 "전남의 맛과 멋을 직접 경험하면서 큰 영감을 받았다"며 "제2의 삶을 위해 가족회의를 통해 전남으로의 귀농어촌을 심도 있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대도시에 위치한 다양한 기관·단체와 협력해 전남 맛보기 행사를 공동 추진하고 귀농어촌을 꿈꾸는 도시민에게 전남의 농산어촌을 체험할 기회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양시원 기자

필요할 경우 장관·복지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체 때 필요한 복지·장관은 사회공헌기업에서 지원하고 교체 시공비는 광주시가 지원한다. 환경부에서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며 환경성 질량이 발생한 대상자 8명에 대해 전문병원과 연계해 진료비·약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성기 기자

市, 주거 열악 취약계층 20가구 실내환경 개선

광주시는 12일 "사회 취약계층의 아토피피부염·천식·비염 등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실내환경 개선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저소득·결혼가정·장애인·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20가구를 선정, 지난달 장

경이 열악한 20가구를 선정, 지난달 장판·벽지를 교체하는 실내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사회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곰팡이 등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필요할 경우 장관·복지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체 때 필요한 복지·장관은 사회공헌기업에서 지원하고 교체 시공비는 광주시가 지원한다. 환경부에서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며 환경성 질량이 발생한 대상자 8명에 대해 전문병원과 연계해 진료비·약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성기 기자

광주시,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 집중 관리

내달 20일까지 김장용 채소 종량제봉투 배출 허용

광주시는 12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김장철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12월20일까지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 집중 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집중 관리 기간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 용량을 평상시보다 20% 증량해 1일 최대 540t 처리하고 반입 시간을 2시간 연장해 음식물 쓰레기를 원활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또 휴이 많이 묻어 있거나 부피가 큰 김장용 채소류에 한해 한시적으로 스티커를 부착한 30ℓ 이하 종량제봉투 배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스티커는 행정복지센터, 종량제봉투 지정 판매소 등에서 배부한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자치구에서는 기동처리반을 운영, 수거 상환

김장엔 전남산 '남도종 마늘' 으뜸

향·맛 강해 품미 살리고 아삭함 최고...道, 판촉 주력

전남도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전남산 남도종 마늘의 소비 촉진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남도종은 겨울철 따뜻한 지역에서 재배되는 난지형 마늘 품종이다. 전남은 전국(2만4천700ha)의 16%인 4천61ha를 재배하는 주산지다. 향과 맛이 강해 김치의 품미를 살리

고 아삭함을 오래 유지해주는 효과가 타 품종보다 탁월하다. 알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높아 김장김치 부재료로 안성맞춤이다. 또한 다량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액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소화를 촉진하며 강한 살균·항균 작용으로 면역력 증진, 암 예방에도 도

을 점검하고 올바른 배출 방법을 지속 홍보하기로 했다.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배추·무·젓갈류는 염분을 제거하고 잘게 절단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용기에 배출해야 하며, 부피가 큰 배추 겉잎과 채소는 휴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스티커를 부착해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김장철 필요한 재료를 미리 확인해 불필요한 재료 구입을 최소화하고 자투리 채소를 국거리로 활용하는 등 생활 속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실천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성기 기자

움이 된다. 전남도는 남도종 마늘 회원 약 6만명,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53만명, 다양한 언론매체 등을 통한 전국 대상 남도종 마늘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김치와 마늘 가공업체 등 대규모 소비처를 발굴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남도종 마늘을 비롯한 김장 재료와 김치는 남도종 마늘 온라인몰(https://inmall.kr)에서 12월13일까지 20%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김정재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차만손

차를 만나면 손을 들어 소통해요

QR 코드 스캔하여 차만손 영상 보기

차·만·손이 왜 필요할까요?

-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22년도 전체 보행자 사망자(933명) 중 횡단중 교통사고 사망자 54.6%(509명) 차지
- 도로 횡단 의사 표현**: '22. 7. 12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하려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의무
- 운전자와 소통하는 문화**: 차량 양보율(광주·전남) 9% → 차·만·손 수신호 실천 시 86%

차·만·손 어떻게 실천해요?

보행자 실천방법	운전자 실천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를 건너기 전 좌·우를 살핀다. 2 다가오는 차량을 향해 손을 90도로 받는다. 3 운전자와 아이컨택하며 손바닥을 보인다. 4 차량이 멈추면 도로를 건넌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보이면 서행한다. 2 차·만·손 보행자가 통행의사를 표시하면 일시정지한다. 3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지나간다.

주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 참여기관: 광주광역시, 전남도, 광주경찰청, 전남남도경찰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남남도교육청, 도로교통공단, 안전보안공단, GTCI,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구소, 전남도교통문화연구소, 광주광역시도시교통사업소, 손해보험협회